



“삼성, 일본 니토덴코 책임 물어라”

노조·양경규 의원, 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요구 ... “암실에서 한 시간 900장씩 검사”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고용승계 투쟁이 금속노조와 국회, 전국 언론의 지지와 관심을 받으며 삼성 자본과 일본 니토덴코 자본을 압박하고 있다.

금속노조와 정의당 양경규 의원은 1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합병, 공급망 노동인권 침해, 삼성 이재용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먹튀 문제 해결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간절하고 절박한 고용승계 쟁취를 위해 고공에 올랐다” 라면서 “두 여성 노동자가 땅에 내려오도록 금속노조가 싸워야 한다” 라고 호소했다.

양경규 정의당 국회의원은 “삼성 디스플레이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쌍둥이 회사인 니토옵티칼에서 납품을 받음으로써 일본 먹튀 자본의 뒤를 봐 주는 꼴이 되고 있다” 라며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으면 금속노조와 노동자들의 심판 앞에 설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최현환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구미공장은 가동을 멈췄으나 납품받는 삼성과 엘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돌고 있다” 라면서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이 대체생산하기 때문이다” 라고 폭로했다.

최현환 지회장은 “노동자들은 캄캄한 암실에서 한 시간 동안 900장씩 검사하며 각막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수하며 일했다” 라며 “일본

자본은 인간의 탈을 쓰고 노동자들에게 나가라고 한다. 삼성이 이런 부품을 받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2월 1일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앞에서 고용승계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 투쟁을 벌인다.

전국금속노동조합 58차 정기대의원대회

소집공고

금속노조 규약 제2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58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소집합니다.

- 아래 -

- 일시 : 2024년 2월 28일(수) 13시
- 장소 : 단양, 금속노조 교육연수원
- 안전
 - 안전1. 12기 2년차 사업평가(안) 및 결산보고 승인 건
 - 안전2. 13기 1년차 사업계획 및 2024년 투쟁방침 승인 건
 - 안전3. 13기 1년차 사업예산(안) 승인 건
 - 안전4. 노조법 시행령 관련 대응 방침 건
 - 안전5. 쟁의적립금 사용 승인 건
 - 안전6. 민주노총 중앙위원 및 대의원 선출기준(안) 승인 건
 - 안전7. 조합 감사위원 선출 건
 - 안전8. 결의문 채택 건

2024년 1월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장창열

